

[기획] >> 4면
우리학교 축제 기획 과정

[심층] >> 5면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사회] >> 8면
라인야후 사태

[인물] >> 12면
최정규 변호사



소통의 부족 속 축제, 모두에게 열린 결말을 위해선

5월 우리학교는 축제의 열기로 물들었으나 일각에서 제기한 기획 과정에서의 비판으로 성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축제 기획 과정△논란의 배경 및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사를 통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정휘영 기자 07hwio@hufs.ac.kr

우리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24년도 불법복제 모니터링단’ 출범

우리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이하 출판원)은 지난 15일 ‘2024년도 불법복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을 공식 출범했다. 모니터링단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2024년 민간협력 불법복제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우리학교는 충남대학교와 함께 시범운영 대학으로 선정돼 이번 모니터링 활동을 주도한다.

이날 출범식에선 최종 선발된 10명의 학생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으며 교내의 불법복제 현황과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모니터링단은 이번 해 11월 까지 약 8개월간 △길거리 캠페인△온라인 커뮤니티 모니

터링△학내 및 주변 지역의 불법복제 감시△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출판원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으로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연관 우리학교 출판원 원장은 “본 원은 △가존 종이책의 전자책 출간△대표 교양 교재의 전자책 단독 출간△종이책 반값 대여 서비스 진행 등을 통해 불법복제 예방 및 근절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유솔 기자 07yusol@hufs.ac.kr

우리학교, 미래외교의 최전선에 서다

지난달 16일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은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미셸 윈스롭(ME. Michelle Winthrop) 주한아일랜드대사(이하 미셸 대사)를 초청해 기후변화의 지정학을 주제로 미래외교포럼(The Future Diplomacy Forum)을 개최했다. 미셸 대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유럽 대표로 오랜 기간 활동한바 있다.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AI(Artificial Intelligence) 및 지정학적 위기와 같은 국제적 사안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국제기구 및 단체에 진출하는 국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외교포럼과 국제 회담을 기획 중이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외교

관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은 1993년 급속도로 활발해진 국제교류와 세계화 기류 속 국제지역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해 설립돼 국제협력 실무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왔다. 이번 미래외교포럼을 기획한 온대원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원장은 “미래외교포럼을 통해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급변하는 21세기 세계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그로부터 제기되는 수많은 도전 요인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김도현 기자 07dohyun@hufs.ac.kr



세계종합항공해운(주)
WORLDWIDE LOGISTICS CO., LTD.



GLOBAL ECONOMY

세계종합항공해운(주)는 한국은 물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생산, 소비되는 제품의 수출입 무역 대항 및 무역 대리점 서비스를 30년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캄보디아간 한국 업체 유일의 Cross Border International License를 보유한 차량으로 각 업체에 맞는 최적화된 물류 솔루션을 제안하여 항공, 해상, Sea & Air 운송, 통관에 이르기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최대화**하여 경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EOUL, KOREA HQ
- BUSAN, KOREA
- QINGDAO CHINA
- SHANGHAI, CHINA
- GUANGZHOU, CHINA

- PHNOMPENH, CAMBODIA
- JAKARTA, INDONESIA
- HOCHIMINH, VIETNAM
- HANOI, VIETNAM
- HAI PHONG, VIETNAM

세계종합항공해운(주)
회장 권 창 일

<http://worldwidelogis.com>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1110호 (서소문동, 유원빌딩)
TEL +822 773 1334 | FAX +822 773 1337

HD현대 권오갑 회장, 우리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

우리학교는 지난 17일 권오갑(서양어·포르투갈어 71) HD현대 회장(이하 권 회장)에게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국제관에 열린 학위 수여식엔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김도연 전 교육부 장관△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총장은 수여사에서 “권 회장이 HD현대의 최고 경영자로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해 온 공로를 인정해 이번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공업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HD현대를 기술 중심의 글로벌 종합중공업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14년 HD현대 중공업 사장으로 취임해 고강도 개혁을 통해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뤄냈으며 2017년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은 권 회장은 2019년 11월 HD현대 회장으로 취임한 뒤 △건설기계△에너지△조선 등 3대 핵심축으로 이뤄진 사업 기획안을 구축함으로써 사업 확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HD현대에는 지난해 기준 매출 61조 3,313억 원 및 영업이익의 2조 316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시가총액은



2014년 말 10조 1,000억 원 규모에서 지난 10일 50조 1,000억 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또한 권 회장은 지난 2011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임직원 본인 급여의 1%를 기부하는 ‘HD현대 1% 나눔재단’의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 지난 2월엔 중대 재해 피해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사재 1억 원을 직접 출연해 ‘HD현대 희망재단’을 설립하는 등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권 회장은 위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전문경영인 최초로 ‘대한민국 기업 명예의전당’에 헌액되었으며 지난해 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 권 회장은 “우리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돼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경영자로서의 사명감과 원칙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유술 기자07yusol@hufs.ac.kr



▲백남준의 다다이즘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기술△예술△역사학의 삼박자,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지난달 우리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이하 기록학연구소)에선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를 주제로 비디오 예술가 백남준의 비디오 아카이브(Video Archive)와 관련된 온라인 화상 강의를 개최했다. 강의 진행 과정에선 박상에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사가 700여 점에 달하는 백남준 기록 영상과 자료를 영상역사학의 좋은 사례로서 소개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디지털 아카이브 역사학의 결합이다. 백남준의 비디오 서재는 4차 산업혁명이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으로 백남준의 작품을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노명환 우리학교 사학과 교수(이하 노 교수)는 위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현실의 미술관에선 공간과 시간적 한계로 예술 작품을 이해할 때 작품과 관련된 다양

한 배경과 정보를 한눈에 탐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강의를 기획한 기록학연구소 소장인 노 교수는 “공신력 있고 잘 보존된 자료들을 보관하는 디지털아카이브가 있다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작품을 폭넓게 이해하면서 관람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술과 학문의 만남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 교수는 역사학에서 비디오 아트가 영상역사학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강조했다. 백남준은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의 상징이자 화염사상을 필두로 미래 시대에 펼쳐질 초연결 시대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또한 백남준의 작품은 그가 살았던 시대를 속속히 기록해 이를 자신의 예술관과 함께 녹여냈다. 전문적인 역사학자는 아니었으나 그의 작품 활동은 역설적으로 그를 우리나라 영상역사학의

선구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향후 삶의 목표에 대해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역사교육이 어떻게 신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할 것이다”라며 “이 연구를 통해 세계에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하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세계시민을 양성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노 교수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인문학은 인간 중심의 학문이자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학문이지 만 절대로 기술을 등한시해선 안된다”며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사료를 암기하는 것은 AI가 담당할 예정이기에 우리학교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창의성을 기르고 사유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도현 07dohyun@hufs.ac.kr

우리학교 창업보육센터, 우수 졸업기업 감사패 시상식 개최

지난달 18일 우리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우수한 경영 성과를 달성하고 창업보육센터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감사패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은창선 우리학교 창업보육센터장(이하 은 센터장)이 우수 졸업기업으로 선정된 ‘알에프투디지털(RF2Digital)’과 ‘샤인소프트(shinesoft)’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알에프투디지털은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솔루션(solution) 개발업체로 지난 2018년 11월 입주 이후 창업도약패키지와 같은 다양한 정부 사업을 수행했으며 매출 증대를 비롯한 사업 확장으로 창업보육센터를 마쳤다. 한편 샤인소프트는 스마트팩토리(smartfactory) 공정자동화 솔루션(solution) 개발업체로 2020년 3월 센터에 입주해 초기창업패키지와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등을 수행했으며 지난 2022년엔 경기도 일



자리 우수기업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상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선 △대학과 기업간의 네트워크 방안△우수 졸업기업 감사패 시상△창업 애로사항 공유 등이 논의됐다. 은 센터장은 “우수 졸업기업으로 선정

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입주 기간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창업 성공 업체와 초기 창업자간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성공 창업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유술 기자 07yusol@hufs.ac.kr

끝없는 도전과 용기의 삶, 이덕선 우리학교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 별세

이덕선(서양어·독일어 58) 우리학교 해외동문연합회 이사장(이하 이 이사장)이 지난달 11일 별세했다. 1966년 미국으로 건너가 컴퓨터 프로그래머(Computer Programmer)로 자신의 미국 생활을 시작한 이 이사장은 1986년 ‘ATG(Allied Technology Group)’를 설립했다. 이후 그는 회사를 미국 연방정부기관을 상대로 첨단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술을 이용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모까지 회사를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연 매출 1억 달러를 달성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이 이사장은 미국 사회에서 소수인종이란 불리함이 있었다. 또한 미국으로 떠날 때 항공료를 감당하지 못해 일본에서 LA(Loss Angeles)로 떠나는 구조물자선을 얻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사장은 자신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무기 삼아 미국 사회에서 높은 평판과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 이사장은 ‘나눔은 결국 더 큰 결실을 맺는다’는 좌

우명을 지키며 살았다. 그는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딴 ‘Matthew D. & Katherine H. Lee Foundation’을 설립해 자원 봉사 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업적과 발자취를 인정받아 그는 2004년 우리학교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08년엔 미국 메릴랜드(Maryland)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기업 100대 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우리학교에 대한 애정을 보인 이 이사장은 현재까지 약 40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기부했다. 그는 최근 우리학교 개교 70주년에 대해 “지난 70년 동안 우리학교는 우리나라의 원동력이 되는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해왔고 국제 교육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기대의 뜻을 내비쳤다.

김도현 기자 07dohyun@hufs.ac.kr

공공연한 녹음본 거래, 문제의식을 일깨울 때

‘수업 녹음본 삽니다’와 같은 글은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하루에도 여러 번 올라온다. 강의 녹음본 거래는 에타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학생들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의 녹음본 거래 현황 및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강의 녹음본 거래 현황 및 문제점

수업 시간에 인공지능이 강의 녹음본을 정리해 주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하 앱)을 이용해 강의를 녹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앱은 음성을 인식한 뒤 글로 변환해 핵심내용을 요약하는데 학생들은 이를 통해 수업 복습 등을 이유로 강의를 녹음한다.

그러나 단순히 강의를 녹음하는 것을 넘어서 강의 녹음본을 사고 파는 일도 흔히 볼 수 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에타에 녹음본을 산다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녹음본을 구매한 학생 A 씨는 “결석을 해 강의를 듣지 못했지만 학점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고 밝혔다. 한편 녹음본을 판매한 학생 B 씨의 경우 “커뮤니티에서 만연하게 이뤄져 녹음본 거래가 불법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높은 학점을 쟁취하기 위해 녹음본에 대해서 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강의 녹음본 거래 행위는 위법의 여지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강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학 강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강의는 ‘저작권법 제4조’에서의 어문저작물로 규정돼 있어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대학교 강의의 저작권은 강의자의 저작물로 분류 및 보호되기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강의 내용을 녹취

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만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영리가 아닌 개인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엔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녹음한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강의 녹음본을 판매할 경우 그 금액과 관계없이 ‘비영리적’ 목적이 아니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소액의 상품권으로 거래되더라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만약 위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위 문제와 관련해 교수 수업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률신문 서초포럼에 보도된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녹음된 자신의 말이 나중에 재생되어 자신에게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지 겁이 났다”며 “말의 자유를 잃은 채 학원강사처럼 한 시간 내내 강의 내용만 전달하는게 일상이 됐다”라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 완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학 내 저작권 교육 강화를 위한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지원 대학을 선정해 현재 △동국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상명대학교△서울예술대학교△호서대학교 등 총 20개 대학교들이 진행하고 있다.

안경호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팀 직원에 따르면 “녹음본 거래에 따른 저작권 문제에 관해 학교의 구체적인 판단 사례는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콘텐츠(contents)가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의 필요성과 심각성에 대해 학내 구성원 모두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행동 역시 불법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더불어 학교 차원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불법 거래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후속보도

불명확한 계절학기 개설 기준, 이젠 변화해야 할 때

지난 1074호 기획 기사에선 계절학기의 불명확한 강의 개설 기준에 대해 다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 계절학기 강의 개설 기준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리학교 계절학기 개설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계절학기 강의 개설 현황

이번 우리학교 여름계절학기는 세부전공을 포함한 총 155개의 전공 중 30개의 전공만 강의를 개설했다. 이는 1074호에 소개된 37개보다 적은 수다. 우리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계절학기 강의 개설을 위해 매 학기 양 캠퍼스(이하 양캠퍼)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설 희망 교과목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조사는 오직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며 실제 강의 개설 여부는 학과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즉 학과가 수요조사를 고려해 계절학기 강의를 자율적으로 개설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계절학기 강의가 개설되지 않는 이유는 각 학과마다 다양하다. 먼저 수강인원이 30명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다는 점이 개설 여부의 발목을 잡는다. 이로 인해 수강인원을 위의 수요조사를 통해 예측하게 되는데 전체 수강인원이 적은 융합전공과 같은 경우엔 계절학기 수요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 수강 예측인원 또한 저조해 개설되기 어렵다. 특수외국어전공 역시 수요조사를 통해 예측된 수강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하지 않는다. 한편 3개의 모듈로 구성된 융합인재학부에선 학생의 모듈에 따라 이수 과목이 다르기에 현실적으로 계절학기 강의 개설이 힘들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학교는 방학 중에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칸디나비아어과△중앙아시아학과△페르시아어·이란학과의 경우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방학 중 집중이수과정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학점 교류 및 국내외 다른 대학교와의 학점 교류 등을 통해 계절학기 학점 인정을 돕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학기 강의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은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우선 학과별로 구체적인 계절학기 강의 개설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강형우(아시아·이란어 22) 씨는 “학과별로 다른 강의 개설 기준으로 인해 불편하다”고 전했다. 또한 학종지의 수요조사 결과 일정 수를 넘는 학생이 강의 개설을 희망할 시 계절학기 강의를 필수로 개설해야 한단 의견도 존재했다. 성결대학교에선 수강신청 인원이 △교양과목의 경우 10명△전공과목의 경우 5명△채플(chapel)의 경우 15명 이상인 경우 필수적으로 계절학기 강의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학교도 일정 수요가 넘으면 강의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

또한 폐강기준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수강인원에 따른 폐강의 기준을 30명 미만으로 두고 있다. 반면 연세대학교의 경우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일 때 폐강하며 경희대학교의 경우 전공교과목 계절학기 개설 기준은 입학 정원에 따라 10~14명 이상의 수강인원으로 설정돼 있다.

온라인 강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계절학기 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온라인 강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어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강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수강 수요 저조에 따른 폐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단 점에서 계절학기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계절학기 강의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다. 계절학기 강의는 일반 학기 강의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교과목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므로 강의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단 우려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각 학과는 △강의 내용의 체계적인 구성△학습자료의 충실한 제공△학생들의 학습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계절학기 강의의 질을 높여야 한다.

△강의 다양성 확대△강의의 질적 향상△우리학교 계절학기 강의 개설 기준의 명확화△폐강 기준의 완화를 통해 학생들이 방학 동안 더욱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문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소통의 부족 속 축제, 모두에게 열린 결말을 위해선

중간고사가 끝난 후 대학가 곳곳은 축제의 열기가 한창이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는 지난 8일과 9일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는 지난 22일과 23일에 각각 축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축제 기획 과정에서 학우들의 다양

한 의견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축제 기획 과정△논의 배경 및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학교 봄 축제 기획 과정

축제 기획은 구체적으로 △무대 설치 및 각종 장비 도입△세부 프로그램 기획△연예인 섭외△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다수의 인력이 참가해 이루어진다. 이중 △각종 시설△무대 장비 설치△연예인 섭외의 경우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행정상 편의를 고려해 기획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보통 기획사 선정은 입찰의 형태로 이뤄진다. 설캠의 경우 우선 '이비즈포유(Ebiz4u)'라는 업체에 입찰 공고를 올려 축제 대행을 희망하는 기획사를 모집한다. 이후 △단과대학 학생회장△독립학부 학생회장△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와 축제 기획단장 그리고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해 이 과정에서 △무대 설비△안전 관리△예산안△섭외 가능한 연예인 명단이 담긴 계획안을 검토한다. 발표 종료 후 참가자는 △우리학교만의 특수성 반영 여부△예산 효율성△프로그램 충실도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 취합 결과 최고점을 받은 기획사가 대행 업체로 선정된다. 글캠의 경우 기획사의 발표가 진행된다는 점은 설캠과 동일하나 입찰 공고가 학생지원팀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과 평가 주체가 △총학생회장단△총학생회(이하 총학) 내 유관국서△학교 관계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부 프로그램 기획은 주로 총학에 의해 이뤄진다. 이는 매년 총학에서 정한 기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데 지난해 설캠 총학의 경우 봄 축제인 '포레스트, for rest'에선 청춘과 힐링(healing)을 주제로 잔디광장에서의 피크닉(picnic)이 기획됐으며 이번 해의 봄 축제인 'Bloom: 꿈을 피우다'에선 꿈을 주제로 꿈 공작소가 운영됐다.

홍보 역시 총학의 재량에 맡긴다. 총학은 카드뉴스를 활용해 축제의 진행을 예고하거나 축제에 방문하는 초청 연예인의 공개 순서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홍보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일례로 우리학교 설캠의 경우 연예인들의 실루엣(silhouette)을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홍보 방식을 활용했다.

축제 당일의 환경 정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통제 역시 총학의 주도로 이뤄진다. 양 캠퍼스(이하 양캠) 총학은 일반 학우 및 단과대학 학생회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이하 자봉단)을 모집해 △공연 관람객의 입장 및 퇴장 시 질서 유지△입장객 관리△취식 공간 정리 등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다. 설캠 축제에 참여한 장혜지(영어·영문 22) 씨는 "자봉단의 노력 덕에 인파에 휩쓸리지 않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전에는 쓰레기통이 가득 찼음에도 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것들이 많아 아쉬웠는데 이번 축제에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돼서 좋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획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와는 별개로 기획 과정에선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대표적으로 양캠의 축제 기획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장

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양캠 모두 입찰의 형태로 기획사의 선정이 이뤄지지만 소수의 인원만이 입찰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일반 학우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입찰 과정에서 사용된 후보 기획사 측의 자료나 선정 이유 역시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입찰이란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노연정(중국·중언문 21) 씨는 "일반 학생의 입장에서 축제에 방문하는 연예인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관련 절차나 방식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최소한 기획사 입찰 과정과 선정 이유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캠 축제의 모습

부적절한 홍보 방식과 대처 역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5일 공개된 글캠 축제 공연엔 여자 아이돌 그룹인 뉴진스(newjeans)와 유사한 명칭으로 활동 중인 '뉴진스님'이 출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글캠 총학은 축제 출연 연예인을 암시하기 위해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의 기자회견 작장을 한 인물을 등장시킨 바 있다. 영상에선 해당 여성이 뉴진스의 노래 가사가 쓰인 종이를 바라보며 뒤로는 검지와 중지를 꼬고 있는 이른바 크로스 핑거(cross finger)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자아내게 했다. 그러나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을 통해 영상 내의 요소들을 근거로 뉴진스가 아닌 뉴진스님이 출연하는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자 학생들의 불만이 확산됐다. 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전략이 오히려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후 글캠 총학 측은 논란이 된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나 별도의 부연 설명 없이 이뤄진 삭제 조치는 학생들의 더 큰 공분으로 이어졌다. 김도윤(동유럽·루마니아 21) 씨는 "초기에 홍보 영상을 보고 뉴진스가 올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결과는 뉴진스님이였다"며 "학생들을 농락하는 듯한 홍보 전략에 일부 학생들 사이에선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가 느껴졌다"라고 전했다. 에타에서도 관계자와 일반 학우 간의 거친 설전이 이뤄졌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자봉단 인력들에 대한 내부 통제가 부족하던 점도 지적됐다. 특히 연예인 공연이 진행될 당시 무대 근처에 배치된 자봉단이 통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설캠 축제에 자봉단으로 참여한 A 씨는 "자봉단 분들이 무대를 보고 싶어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무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일부 인원 중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현재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먼저 기획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지난 3월 23일 '수요조사 참여해서 원하는 연예인 보러가자!'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해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사전 신청을 통해 일반 학생들도 축제 기획사들의 발표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질의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기획사의 발표 종료 후 현장에서 바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닌 관련 자료를 지역 단위 학생회 집행부원 혹은 운영위원회에 공유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입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입찰 결과를 정리한 뒤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등의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한다.

홍보 수단의 변화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의 활용은 중요하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학생들의 기대를 반감시키는 홍보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출연 연예인 사전공개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직접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단서의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립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우 공식적으로 사용된 출연 연예인들의 사진을 실루엣으로 만들어 홍보에 활용한 바 있다. 추가로 인기작품들을 주제로 한 홍보물의 작성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서강대학교의 경우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의 배경을 활용하여 축제 참여 연예인 공개 및 축제 반입 금지 품목 설명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자봉단의 내부 통제 부족 문제의 경우 인원 간의 지속적인 언급과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A 씨는 이와 관련해 "자봉단장 차원에서 본인이 맡은 실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한 적이 한 차례 존재했다"라고 전했다. 축제 당일의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최전선에 배치된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관객 쪽을 상시 예의주시하며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축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총학은 학생을 대표하는 최상위 자치기구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과 그에 상응하는 개선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선

매해 여러 매체에서 청년들의 취업난 문제가 대두되는 반면 중소기업에선 인력난 문제를 제기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자 정부는 기업엔 인력을 충원하고 청년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목돈 마련까지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내공)를 운영

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재정 여건 악화와 중도 해지율 증가 등을 이유로 청내공의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며 사실상 전면 폐지가 결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의의 및 현황△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에 대한 우려△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의의 및 현황

청내공은 △기업△정부△청년으로 구성된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에게 초기경력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엔 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금융 제도로 평가된다. 근로자가 예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저금하면 만기 시 정부와 기업도 각각 지원금을 보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청내공의 납입 기간은 2년이며 △기업 부담금△정부 지원금△청년 적립금은 각각 400만 원으로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1년에 20만 원씩 추가 납부도 가능하며 3년 동안 근로자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도 각각 600만 원을 보태 1,8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는 만기 후에도 연장가입이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점에서 청년들의 장기근속 또한 유도할 수 있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어졌다. 지난 2016년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이후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이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했다. 특히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직종에선 우리나라 청년들을 직원으로 데려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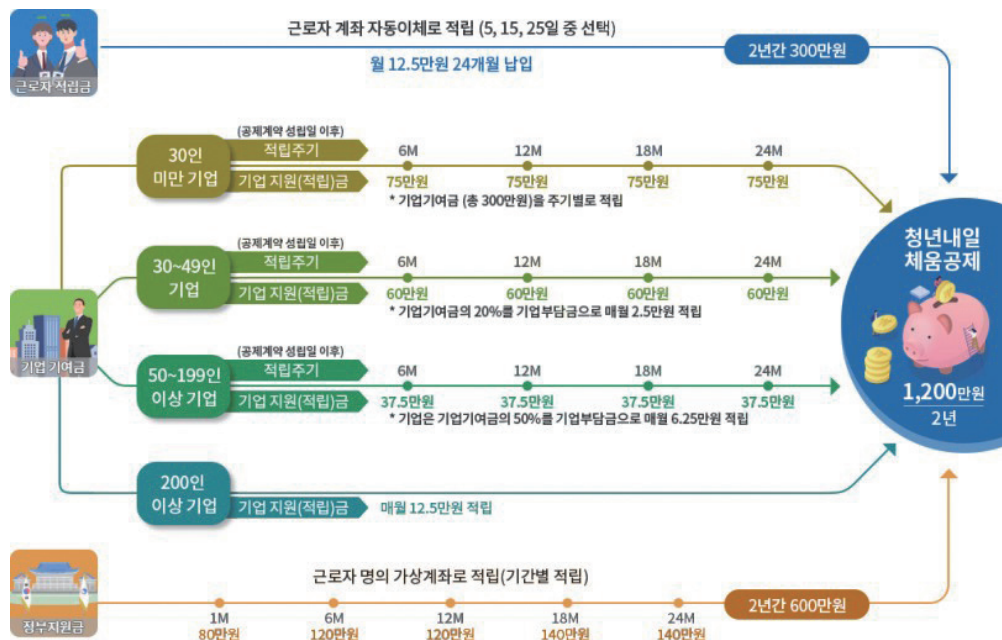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청내공은 예산 문제로 폐지됐다. 이후 지난 2022년엔 만기 시 1,200만 원을 지급하는 2년형의 청내공 플러스로 개편됐으나 이마저도 점차 고용 상태가 개선되고 신규 가입 청년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인해 이번 해부터 기존 가입자에 한해 지원하게 됐다. 실제로 개편 이전 청내공의 가입자는 목표 달성률의 100%를 돌파했지만 지난해 8월 기준 달성률은 23%에 그쳤고 중도해지율은 40%를 넘어섰다. 이는 청내공 플러스가 기존에 비해 가입 조건과 지원대상이 까다롭게 변한 반면 혜택은 축소됐기 때문이다.

한편 청내공 플러스의 신규 가입 중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인 청내공 사업 예산은 지난 2022년 대비 862억 원 감액된 1,217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관련 예산이 40% 가까이 감액된 것으로 지난해 가입자까지만 지원하고 이번 해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겠다 것을 의미한다.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업이 종료된다는 안내를 게시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의 논의점과 우려점

이번 청내공 폐지는 예산을 다른 분야에 투입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등과 같이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

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 청내공 사업의 신규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율마저 크게 증가한 상황이었다. 중기부는 재정여건 악화와 중도해지율 증가를 이유로 해당 사업을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900억 원을 증액해 사업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역화폐와 청년패스에 더 치중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주고받기의 희생양으로 청내공을 선택했다. 중기부 또한 이와 관련된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청내공의 폐지 소식은 중소제조기업 입사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를 낳았다. 이 제도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목표로 하는 만큼 폐지 시 청년들의 중소기업 입사율도 기존보다 더욱 낮아질 것이라 전망 때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표

한편 내국인 근로자의 중소제조기업 기피 현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지난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가 89.8%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 취직의 이점이 감소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입사율도 기존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요신문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내국인 근로자의 중소제조기업 기피 현상이 증가하면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청내공이 도입됐다"며 "해당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할 이유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남연우(동유럽·체코어 23) 씨는 "청내공으로 목돈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자 목표를 철회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에 계신 선배님들이 장기근속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청내공의 폐지에 따라 기업의 근심도 커졌다. 지난 1월에 열린 청년진보당의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이 제도의 폐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지원금이 축소되는 것이라 다름없다"며 "이 제도를 신청하면 만기까지 2년은 그 회사에 재직해야 하기에 최소 2년은 이직하지 않는 청년이 대다수였지만 폐지로 인해 이젠 이직률을 낮추기도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 B 씨는 "청내공의 폐지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다면 기업의 인력난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한편의 경우 청내공과 유사한 정책인 '청년 취업 지원금'을 운영한다. 실업 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이 제도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에서 1년의 일정 기간 근속하면 약 30~50만 엔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일본의 이 정책은 △교육비 지원△실업률 감소△청년 고용 안정 등의 복지를 통해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내공 폐지에 대해 성공회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 씨는 "청년 자산 마련 정책으로 그간 청년인력과 중소기업이 '윈윈(winwin)' 구조를 이어왔다"며 "우후죽순 생기는 청년 지원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청내공과 결이 다르다"며 "지역 중소기업 인력 이탈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전했다. 경인방송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안정적 취업 유지를 장려하는 청내공의 부활이 필요하다"며 "다음 해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고용 시장까지 안 좋아진다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광주고용복지센터 관계자 D 씨는 "재정여건 악화와 이용률 감소 등이 일몰 사유로 알고 있다"며 "청내공과 똑같은 사업 개요·지원내용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 있는 만큼 기존 사업을 활용해 청년취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시량(국제지역·중앙아시아 23) 씨는 "가족이 워라벨(work-and-life balance)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이 제도를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존속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안책을 새롭게 마련해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강휘영 기자 07hwio@hufs.ac.kr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4학년도 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 분	모집일정
원서작성 및 서류접수	원서작성: 2024. 5. 21(화) ~ 5. 30(목) 서류접수: 2024. 5. 21(화) ~ 5. 31(금)
전형일	2024. 6. 15(토)
합격자 발표	2024. 6. 28(금) 예정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 나. 유엔평화대학 이종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일정

학 과 (전 공)	학 위
한국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구 분	모집일정
원서작성 및 서류접수	원서작성: 2024. 5. 21(화) ~ 5. 30(목) 서류접수: 2024. 5. 21(화) ~ 5. 31(금)
전형일	2024. 6. 15(토)
합격자 발표	2024. 6. 28(금) 예정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접목
-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가 양성을 목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 마. 한국연구재단 HK-(인문한국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연구조교 기회 제공
- 바. 국제지역연구센터 프로젝트 연구조교 기회 제공
- 사. 신임생 및 재학생 등 각종 장학금 수혜 가능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험난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호찌민에서의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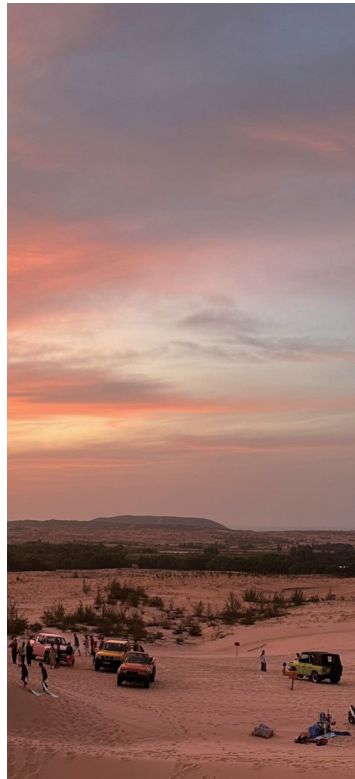
나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우리학교 자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Vietnam) 남부 도시 ‘호찌민(Ho Chi Minh)’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베트남 어과 학생들에게 베트남 연수 경험은 아주 보편적이다. 하지만 비행기 공포증이 심했던 새내기 때의 난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비해 불편한 점이 많아 보였던 동남아시아에서 혼자 공부하게 될 일이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그래도 남들 다 가니까 나도 일단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동기들을 따라 호찌민에 가기로 했지만 그렇게 철없는 마음으로 신청한 연수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실수를 해 출국 일자를 미뤄야 했고 비슷한 시기에 출국해 함께 현지 수업을 들으며 적응을 마친 동기들과는 달리 혼자 수업을 들으며 외로움을 느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가지고 있던 카드까지 전부 분실했을 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난 가족들을 만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카드도 받을 겸 3일이라도 본가에 다녀오기로 결심했다.

본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 뒤 다시 호찌민에 돌아갔을 땐 마음을 다잡고 현지 생활에 집중했다. 수업과 과외를 통해 열심히 언어 실력을 키워며 현지 환경에 서서히 적응하다 보니 베트남에서만 할 수 있는 즐거운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함께 살았던 동기들과 놀러 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으러 다녔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베트남쌀국수(Pho)나 우리나라 돼지갈비와 비슷한 고기가 올라가는 분짜(Bun cha)와 검스언(Com suon) 등 맛있고 저렴한 베트남 음식들로 인해 살이 찌기도 했다. 연수 초반에 스트레스와 물갈이로 심하게 살이 빠졌던 것에 비하면 정말 큰 발전이었다. 스나트랑(Nha Trang)스다낭(Da Nang)스탈랏(Da Lat)스무이네(Mui Ne) 등 유명한 베트남의 도시들을 여행하며 식견을 넓히고 예쁜 사진도 많이 남길 수 있었다.

물론 큰 시련도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다 그 배기관에 화상을 입은 것이다. 베트남에선 가격대가 높고 이동 시간이 긴 버스나 택시보다 오토바이가 보편적인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오토바이에 달린 배기관 온도는 최대 100도까지 올라가 위험하니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 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토바이를 이용하다 일어난 사고였다.

결국 나는 6개월이 목표였던 연수를 예정보다 빠른 3개월 만에 끝마치고 귀국해야 했다. 베트남에서 험난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난 매번 스스로를 탓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험난한 일들조차 값진 경험이었다. 모든 상황들은 내가 겪어야 할 인생의 한 부분이었고 그걸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 물론 다시 돌아간다면 더 굳은 마음가짐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지만 연수를 다녀온 것과 일찍 귀국하게 된 것 모두 후회하지 않는다.

당시 베트남에선 우리나라로 돌아간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어디에든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삶이란 항상 고달프지만 동시에 행복한 것이다. 요즘 나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베트남에서의 연수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즐거움과 힘들이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도 늘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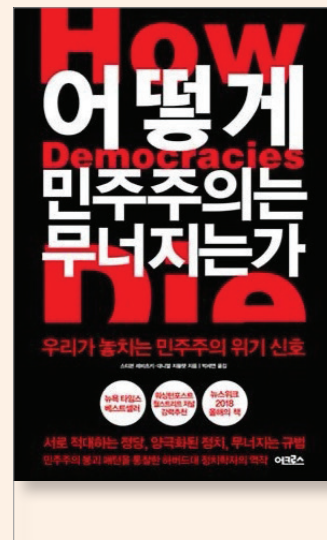
오진애(아시아 · 베트남어 22)



미국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기 위해선 -



작품의 저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미국의 정치학자다. 이들은 중남미의 정치현상을 연구해온 학자로 트럼프의 당선을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하며 본 책을 써 내려갔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스트(populist)*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한 후 그 특성들에 대한 ‘리트머스 종이를’ 소개한다. 이후 민주주의는 ‘보이지

않는 민주주의의 가드레일(Guardrail)’인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무너졌기에 위협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상호 자제란 상대를 적이지 아닌 같은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제도적 자제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어도 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러한 가드레일이 무너진 미국에 불량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포퓰리스트 ‘트럼프’의 등장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가드레일이 우리나라 정치엔 얼마나 작동하고 있을까. 오늘날 정치인들은 서로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상대에게 △범죄자△친일파△빨갱이란 단어를 내뱉는다. 극우 및 극좌 성향을 가진 유튜버(Youtuber)들은 이를 선동하는 영상을 매일 쏟아낸다. 이 과정에서 상호 관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국회는 매일 정부의 정책 및 인사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정부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권한을 활용해 국회를 우회하고자 한다. 제도적 자제 또한 우리나라 정치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사라진지 오래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스트가 등장하기 좋은 때가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우선 정치인들이 서로를 적으로 보는 정치문화부터 개선해야 한다. 정치를 ‘선거에서 적을 이기기 위해’가 아닌 ‘더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어필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실현된다면 상대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니 제도적 자제 또한 실현될 수 있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은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우리의 정치인들 또한 자신들의 생존보다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해 위와 같은 생각들을 고민해야 한다. 위와 같이 가드레일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정치는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포퓰리스트 :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일을 추진하는 사람. 주로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인을 이른다.

남우현 기자 07woohyun@hufs.ac.kr

BioPlus Co.,Ltd.

아름다움에 건강을 더하는 글로벌 기업 바이오플러스

Life Plus, BioPlus⁺

바이오플러스(株)는 세계유일의 독보적인 기술인 “MDM” Tech를 적용

생체재료응용제품(필러, 유착방지제, 관절조직수복제, 방광염치료제, 생체유방대체제)과 바이오치료제를 포함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경색 보툴리눔 독소, 비만·당뇨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특허받은 바이오 기술력이 적용된 코스메틱 사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삶과 건강한 미래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www.ubioplus.co.kr

침체되는 인문학, 우리가 지켜야 할 자산

지난달 23일 덕성여자대학교는 다음 해부터 불어불문학과(이하 불문과)와 독어독문학과(이하 독문과)의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기 저조 등을 근거로 두 학과에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고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인문계열의 두 학과가 한번에 사라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번 덕성여대의 결정이 다른 학교의 인문계열 학과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인문학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문학 침체 현황△인문학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인문학 침체 현황

인문학은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및 문화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최근 인문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 1954년 외국어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우리학교는 그 특성상 인문학 침체의 중심에 서있다.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어문학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학교는 지난 2022년 중국언어문화학부 내에 차이나데이터 큐레이션(China Data Curation) 전공을 신설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들은 변화가 아닌 완전히 폐지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글로벌컴퍼스(이하 글캠) 통번역대학의 △영어통번역학부△일본어통번역학과△중국어통번역학과△태국어통번역학과 4개 학과와 국제지역대학의 △러시아학과△브라질학과△인도학과△프랑스학과 4개 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해부터는 통번역대학의 다른 4개 학과마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며 통번역대학이 완전히 폐지됐다.

한편 다음 해부터 △몽골어과△사범대학△AI(Artificial Intelligence)융합대학△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학부△LT(Language&Trade)학부를 제외한 서울캠퍼스 전 학과에서 이번 해 입학 정원의 65%를 감축해 100명의 신입생으로 신설된 자유전공학부(실캠)가 출범하고 글캠은 우크라이나어과와 한국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에서 이번 해 입학 정원의 45%를 감축해 자유전공학부(글캠)를 108명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전공학부는 상경 및 공학계열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학교 융합인재대학의 경우 2학년 때 자신의 전공 모듈을 정하기 때문에 특정 모듈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지난 1월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와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무전공 모집 및 자유전공학부 독려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경북대학교는 다음 해부터 사범대학 유럽어교육학부의 불어교육전공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했으며 부산대학교도 이번 해부터 사범대학 독어교육과와 불어교육과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 동국대학교는 2009년에 독어독문학과를 폐지했으며 동덕여자대학교는 독일어과와 프랑스어과를 유러피언스터디즈(European Studies)전공으로 통합했다. 건국대학교는 2005년 독문과와 불문과를 EU문화정보학과로 통합했으며 2009년엔 EU문화정보학과마저 히브리중동학과와 함께 사라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매해 발행하는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어문학 관련 학과는 2018년 920개에서 2023년 750개로 20% 가까이 줄었다. 현재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대학에 독일어 관련 학과는 52곳, 프랑스어 관련 학과는 47곳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인문학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알파고(AlphaGo) 등장 이후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학과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사회탐구영역에 응시한 수험생은 2011년 63.5%에서 2022년 52.7%로 10%p 넘게 감소했다. 또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수능에서 52%의 수험생들이 과학탐구영역

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는 2022학년도의 48%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전문직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인문학 선호도 감소의 원인 중 하나다. '의대 열풍'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의과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인문계열 학생들도 전문직종에 종사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공인회계사 등의 시험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인문학 서적 이미지(출처: pixabay)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서도 일명 'STEM' 전공이 인기를 끌고 있다. STEM은 △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의 첫 글자를 딴 말로 △과학△기술△공학△수학 계열이 미래가 유망하다고 여겨져 많은 학생들이 지망하는 전공을 모아 부르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스티븐 펄스타인(Steven Pearlstein) 조지 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 행정학과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발행한 칼럼에서 "인문학 교육은 자유로운 생각을 통해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도록 돕는다"며 현 상황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문학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한편 인문학이 대체될 수 없다는 의견도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음에 온다 시즌3'에 출연하여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인류의 위기를 본다"며 "인문학이 없으면 기술만 계속 발전해 기계가 주인이 되는 디스토피아(Dystopia)를 만들 뿐이다"고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2022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공계 인재들만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물으며 "나중에 잘못됐을 때 또는 이 방향이 아니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탄했다. 노명환 우리학교 사학과 교수는 "학문으로서의 순수 인문학만 고집하고 대중을 위한 인문학이 미비한 실정이다"며 "디지털 세계의 특성과 융합하여 세상과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심도 있는 인문학과 사회적 인문학을 조절해야 한다"며 "학교 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른 학문 분야와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야 할 방향

위기에 처한 인문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인문학 진흥과 인재 양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의 제1조에선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우리학교는 교양교육의 독립성과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양학부를 2014년 미네르바교양대학으로 확대 및 개편했으며 지금은 미네르바교양대학이 주관하는 '미네르바인문(1)읽기와쓰기'와 '미네르바인문(2)읽기와토의토론' 과목이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돼 있다. 우리학교의 미네르바교양대학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의 학부대학 및 언더우드국제대학(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과 경희대학교의 후마니타스칼리지(Humanitas College) 등 많은 대학에서 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도 '코어 커리큘럼(Core Curriculum)'을 통해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코어 커리큘럼은 △과학의 선구자△문학 인문학△미술 인문학△음악 인문학△코어 커리큘럼의 적용△현대 문명 등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코어 커리큘럼을 주관하는 컬럼비아 칼리지(Columbia College)는 이에 대해 "중요한 작품들과 현대 문제 그리고 인류에게 있어 가장 지속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전반의 담론과 숙고를 함양하는 공동 학습의 경험"라고 말한다. 이외에도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는 '하버드 칼리지(Harvard College)' 그리고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는 '예일 칼리지(Yale College)'를 운영해 인문학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이공계열의 선호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와중에도 학계는 여전히 인문학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인문계열 학과가 경쟁력을 잃고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할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이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4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4학년도 후기 일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4.04.08(월) ~ 04.17(수)	2024.05.20(월) ~ 05.29(수)
고사장 발표	04.24(수) 15:00	06.05(수) 15:00
면접전형	04.27(토) 10:00 예정	06.08(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09(목) 15:00	06.20(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05.13(월) ~ 05.17(금)	06.24(월) ~ 06.28(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룬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동증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정중명세(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중·고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 나. 최소 3학기(초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영어 수어(번역학과))

-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끝없는 한일 줄다리기, 혼돈 속의 라인사태

최근 라인야후(Line Yahoo)의 지분 조정을 두고 한일 양국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일본 내 1위 메신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하 앱)인 라인을 운영하는 회사로 지난해 9월 라인야후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Naver)의 클라우드 액티브 서버(Cloud active server)가 해킹되며 라인야후의 일본 사용자들에 대한 약 51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가적 안보 차원의 문제라며 예민하게 반응했고 지난 3월부터 라인야

후에게 두 번의 행정지도를 명령했다. 주요 골자는 네이버가 가진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과 정보 유출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네이버가 소유한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을 배척하는 것이라 여론이 발생 중이다. △라인 사태의 배경과 현황△양국 정부와 국민의 반응△나아가야 할 방향

◆라인 사태의 배경과 현황

라인은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하는 일본 내 주요 메신저 앱이다. 일본 사회에서 라인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단순한 메신저 서비스가 아니라 △금융△쇼핑△오락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일종의 종합 플랫폼(Platform)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라인의 일본 월 이용자 수는 각각 △라인메신저 9,600만 명△라인뉴스 7,700만 명△라인VOOM* 6,800만 명△라인페이 4,000만 명으로 라인은 언급된 각 분야에서 이용자 수 1~2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라인의 영향력은 2016년 일본 이시카와현(石川)에서 발생한 구마모토(熊本) 지진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지진 발생 당시 일본 언론은 지진 발생 지역에서 전화 대신 라인 메신저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고 일본 정부도 라인과 '정보 활용에 관한 파트너십(Partnership) 협정'을 체결할 만큼 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이에 대해 당시 일본 여론은 "라인이 일본의 완전한 인프라(Infra)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라인의 소유권은 복잡한 상태다. 라인야후는 라인 및 야후 재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2021년에 우리나라 회사인 네이버와 일본 회사인 소프트뱅크(Softbank)가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소유하는 지주회사 'A홀딩스'(A holdings)를 설립하고 그 지분을 절반씩 나눠 가졌다. 즉 라인야후에 대한 소유권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양분한 것이며 어느 한쪽이 A홀딩스의 지분을 1주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인야후의 경영은 소프트뱅크가 맡고 시스템 운영은 네이버가 맡기로 협의했다.

문제는 지난해 9월 라인야후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던 네이버 클라우드의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Active Directory Server)*가 익명의 해커에 의해 해킹(Hacking)되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네이버 서버에서 라인야후와 관련된 약 51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고 네이버 측은 주로 일본인 사용자의 △구매이력△스나이스별△이용권한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의 계좌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같은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책임을 물으며 지난 3월 라인야후 측에 네이버가 소유한 지분을 매각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결국 라인야후는 이에 따라 네이버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라인야후 측은 △네이버와 불필요한 통신 차단△네이버와 시스템 분리△네이버와 위탁업무 종료△보안운영센터 업무를 일본 내로 이전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난해 9월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응하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없다는 점을 발표했다. 실제로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건이 지난해 11월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와서 조사를 요청해 대응이 힘들다"며 "국민의 개인정보에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의 반응

일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라인야후에게 네이버와의 단절을 요구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네이버를 통해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라인야후가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보유한 네이버를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네이버가 소유한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의견이다"라고 보도했다. 즉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네이버가 가진 라인야후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명분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라인을 일본 내의 핵심 인프라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라인을 명실상부 일본의 인프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겨레 신문에서 지난 13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한다" 혹은 "네이버가 분명한 입장을 주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와 같은 발표를 통해 사실상 네이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여야 정치권 모두는 정부의 미온적 반응을 질책했다. 지난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뺏으려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속수무책"이라고 언급했으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 나서지 않겠다는 정부의 모습은 방관에 가깝다"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여야 의원이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 브리핑에서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며 "이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언급했다.

한국경제가 지난 3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최수연 네이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일 열린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에서 "자본 지배력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지난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지분 매각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이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라인의 △개발△보수△운영△유지 등을 모두 맡아온 네이버의 기술이 없으면 라인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네이버가 지분을 정리하더라도 해당 기술을 매각하거나 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License) 이용료를 받는 등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13일에 네이버 노동조합인 '공동성명'은 "라인 계열 구성원 및 약 2500명의 한국계 라인야후 노동자와 같은 인적자원부터 이들이 축적한 기술 및 노하우까지 모두 보호해야 한다"며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라인야후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현재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의 64.5%를 보유한 A홀딩스의 지분을 절반 보유하고 있으므로 라인야후의 지분 중 약 33%를 갖고 있다. 이번 달 10일의 주가를 기준으로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은 약 8조 3,000억 원에 달하나 네이버가 라인야후에 대해 갖고 있는 기술 라이선스의 가치 및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약 10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라인야후의 산하 기업인 라인플러스는 △동남아시아△미국△중국 등의 해외에 법인을 지니고 있으며 라인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대만△인도네시아△태국의 라인 사용자가 약 8,3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은 해외시장에서 라인이 가진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라인플러스는 라인야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만약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라인플러스를 통한 동남아시아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간에는 직접적인 자본관계나 인적관계가 없다"며 "라인플러스는 앞으로도 라인야후 산하 기업으로서 대만이나 태국 등 해외사업을 총괄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즉 라인플러스와 네이버의 관계에 선을 긋는 것이다. 또한 지난 14일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도 "우리는 네이버가 아닌 라인 직원이다"라며 라인야후의 소속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잃고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건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잠재적 이윤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미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측에 네이버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행정지도를 두 차례나 내렸으며 라인야후 및 라인플러스는 네이버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인 사태는 △네이버 기술 유출 우려△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축소△약 2500명의 우리나라 임직원 고용불안△우리나라 내 반일 감정과 같은 여러 문제가 얹혀 있기에 양국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다만 라인사태는 단순히 네이버라는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일본에서 어떤 입지를 가질지를 다투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라인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네이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짧은 동영상만 업로드하고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
**사용자와 컴퓨터 목록 및 권한을 담고 있는 서비스 집합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해외직구 규제, 안전 보장의 최선책인가

정부가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6월부터 KC(국가통합인증마크)가 없는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이나 전기 제품 및 생활용품은 해외 직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직구를 애용하던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나흘 뒤인 20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관계 부처는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라고 사과했다.

사회 수류탄 폭발 사고로 훈련병 사망

지난 21일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폭발로 훈련병 한 명이 사망하고 소대장 한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수류탄이 폭발해 훈련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공교롭게도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선 지난 1998년 같은 날짜에 수류탄 폭발 사고로 훈련병과 교관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청춘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청년의 죽음에 안타깝고 애절한 심정이다"며 "전우를 잃은 32사단 장병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육군본부는 사고 발생 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제 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경제 '천비디아', '20만닉스' 반도체 기업 호재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가 지난 22일 실적 발표에서 이번 1분기 매출이 260억 4,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000달러를 넘겼고 주식을 10분의 1로 분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에서 "다음 산업 혁명이 시작됐다"며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매우 향상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엔비디아에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SK하이닉스(SK hynix)도 23일 사상 처음으로 주가 20만 원을 돌파했다. 반도체 기업의 연이은 호재에 기획재정부는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등 반도체 산업에 26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이란 대통령 헬기 사고로 사망

지난 19일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이하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 동아제르비자진주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Giz Galasi) 댐 준공식에 참석한 후 타브리즈(Tabriz)의 정유공장으로 향하던 중 헬기가 추락하며 실종됐다. 사고 12시간 후 헬기 잔해가 발견됐지만 이란 국영방송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던 중에 순교하셨다"고 전했다. 사고 당일 악천후와 기체 노후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이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이스라엘 측은 이를 부인했다. 백승훈 우 리학교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인지까지 연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확대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하기 위해선

최근 살인사건과 같은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해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재조명되며 '신상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문재완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해당 법률의 △의의△적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문재완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Q1. 신상 공개 판단은 어디에서 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신상 공개 여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이뤄 집니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 밖에도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범행 후 정황△피해자 보호 필요성△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2. 신상 공개 처분 시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상이 함께 노출될 위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 시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를 포함해 그 주변인의 신상까지 노출돼 부가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인격권 침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상 공개 처분이 확정된 범죄자 이외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당연히 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변인이 간접적으로 노출돼 부수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다소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부수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거스르면서까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Q3. 지난 1월 25일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전의 신상 공개 제도와 비교했을 때 해당 법률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사범죄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상 공개 제도는 △200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그 대상을 △청소년 성매수자△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성폭력범△중대범죄자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통해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절차를 보완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뒤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과 잘못된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는 측면에서 종전의 법보다 진보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적극적인 '얼굴 사진 공개'에 위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의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하고 공개할 수 있는 방식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 침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Q4. 해당 법률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나요?

먼저 신상 공개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을 위해선 보안처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단 점이 입증된다면 소급적용해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한 사안들에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Q5. 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해석에 따른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소 모호하게 서술된 법률적 이유가 있을까요?

해당 법률의 기준이 불명확하게 서술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일부 대상자의 신상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는 우리나라 신상 공개 제도의 특성상 그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서술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출처 FREEPIK

Q6.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사이트에 신상 공개가 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2차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신상 공개 처분과 그 신상에 대한 공유 행위는 다른 맥락으로 취급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신상 공개 처분을 받은 범죄자라도 그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공익성과 진실성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2차적 공유 행위가 사적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에 의한 것이며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하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7. 최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유튜브(Youtube)' 등으로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른바 '사적제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적제재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신상 공개에 개입하는 주체를 △정부△언론△개인으로 나눠 본다면 아날로그(Analog) 시대였던 과거엔 개인이 그 주체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 및 비용적 부담이 컸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사적제재'는 인터넷의 발달과 공론

장의 확대로 인해 일어난 현대적 사안들입니다. 이는 그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의거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8. 다른 나라에선 신상 공개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나라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체포된 모든 사람에 대해 수사 목적으로 머그샷(Mug shot)을 촬영하고 이를 공공기록으로 분류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합니다. 이는 주마다 차이가 있을지언정 유명인이나 범죄의 경중 여부와 관계없이 체포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관행입니다. 또한 일본은 정부의 개입 없이 언론이 신상 공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부의 처분과 별개로 언론이 뉴스가치를 판단해 범죄자 및 피의자의 신상을 사건과 함께 보도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기관에서 심의를 통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언론은 이러한 처분에 따르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모든 수사 대상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 특정인의 신상만 공개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보다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Q9. 현재 우리나라에선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처벌 또한 강화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범죄자 신상 공개가 더욱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신상 공개 제도는 200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이후부터 여론의 지지를 얻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 왔습니다. '적극적인 얼굴 공개'와 같이 위헌성 소지가 있는 내용을 재고한다면 신상 공개 제도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 기관의 결정이나 여론과 관계 없이 언론이 책임 있게 그 역할을 다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정부 기관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언론이 이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독자적으로 뉴스가치를 판단해 수사 진행 상황 및 신상정보를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소급(溯及): 새로 도입된 제도나 법이 과거의 사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형벌불소급원칙(刑罰不溯及 原則):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하며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에 의거함.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밀도의 시간

나는 긴 글을 적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이 글을 적으면서도 뒤에 올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엔 신문 속에 있는 긴 기사들을 보고 이유 없는 경외심이 생겼다. 그런데 기사는 단순히 긴 글이 아니었다. 사건에 대해 주체적인 관심과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진 기자가 자신이 쓴 기사의 여파를 숙고한 채 써 내려간 글이 기사인 것이다. 그래서 더 고만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 기자로서 잡게되는 펜이다.

기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사를 써야 하는지를 여전히 잘 모르지만 외대학보에 지원할 당시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학내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갖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기자가 고려해야 할 것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아무것도 모르던 난 외대학보에서 △기획기사△사회문화기사△심층기사△영화칼럼△학술기사를 작성하며 조금씩 배워갔고 이제 학내 문제에 대한 좋은 기사를 어떻게 작성할지 고민하는 내 작은 발전이 스스로 뿌듯하다.

학보사실 한편엔 선배들이 발행한 오래된 신문들이 겹겹이 쌓여있다. 빛이 바래서 황토빛을 띄는 신문들은 이곳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치우지 못하는 이유는 선배들이 치열하게 고민한 시간들이기 때문이다. 그 소중한 시간들 위에 △편집장님△부장님△차장님△동료들의 시간이 더해졌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의 밀도는 더욱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몇 년이 지나도 우리가 학보사실에서 보낸 시간들은 잊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늘 사소한 망설임이 많았다. 초등학교 시절 무슨 색을 좋아하냐는 선생님의 질문엔 하루 종일 대답하지 못했다. 물론 지금도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단호히 선택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도 계획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람인 내가 한 가지 확실하는 것은 바로 내가 “단호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란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든 일에서든 ‘여지’를 남기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에게 실수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사과하기 위해선 ‘여지’가 필요하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약간의 여지가. 그래서 난 그런 조금의 ‘여지’를 남기는 사람이고 싶다. 내게 실수한 누군가가 사과해도 받아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다른 사람에게 ‘여지’를 남겨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준 ‘여지’는 다시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박진하 기자

[책 ‘구의 증명’을 읽고] 영원하고 기괴한 사랑

이 책의 도입부에선 “천년 후에도 사람이 존재할까?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그때가 천년 후라면 좋겠다”란 영원함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주인공 ‘담’과 ‘구’는 초등학교에서 처음 만났다. 둘 다 결핍있는 가정에서 자라 많은 시간을 서로에 의지한다. 둘은 마치 영혼으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서로를 매 순간 그리워한다. 두 사람이 잠시 헤어졌다가 재회했을 때 구는 벗어날 수 없는 빛을 진 채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다. 둘의 도피는 오래가지 못했다. 사채업자들에게 납치당한 구가 고문당하다 죽게된 것이다. 구와 담이 서로만을 보며 살아가다 담은 혼자 이런 말을 한다 “만약 네가 먼저 죽는다면 나는 너를 먹을 거야 그래야 나 없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머지않아 이 말은 사실이 된다. 구의 시체를 발견한 담은 구의 시체를 먹는다.

애절한 구와 담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구와 담의 인생이 기괴하단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다닌다는 이유로 학교에선 놀림거리가 되기 쉬우며 정작 이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지 않다. 가난 역시 마찬가지다. 구와 담 모두 가난한 환경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쓴다. 그러나 어떻게든 합당한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가 그들에게 너그럽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 살게 된 것이다.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지유솔 기자 07yusol@hufs.ac.kr

[영화 ‘와일드 라이프’를 보고] 안정된 모든 것은 약하다

아빠와 아들이 미식축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 이 영화는 한 가족의 따뜻함을 보여준다. 아들 ‘조(Joe)’는 엄마인 ‘지넷(Zinet)’으로부터 공부를 배우고 아빠인 ‘제리(Jerry)’로부터 미식축구를 배우며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바른 청년으로 자란다. 소박하지만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가정은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부서지기 시작한다.

자신의 무릎에 흠이 묻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골프장에서 손님들의 신발을 닦았던 제리는 하루아침에 해고당한다. 그는 고작 2주 치 급여를 갖고 집에 돌아오지만 누구도 제리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가족의 응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다시 돌아와 달라는 골프장의 요청을 자존심 때문에 거절한 뒤 마트 직원을 무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다.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 지넷은 결국 수영장에서 강사를 맡는다. 또한 그의 아들인 조도 사진관에 취업해 조금씩 돈을 벌어들인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빼고 모두가 직업을 구해 일하는 상황이 탐탁지 않다. 결국 자신의 자존심을 이기지 못한 채 근처에서 번진 산불을 끄러 간다고 밝히며 가족을 떠난다.

지넷은 자신과 아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한다. 우울과 슬픔에 젖은 것도 잠시 그녀는 달라진다. 다음 날 한껏 꾸미고 나타난 그녀는 “자기연민은 필요 없어”라며 수영장 강사도 그만둔다. 그리고 그날 거실엔 지넷에게 수영을 배운 ‘밀러(Miller)’라는 나이 든 남자가 앉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아 있다. 자신과 아들이 살아가기 위해선 밀러의 힘이 중요했던 것일까 아니면 이제까지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의 일탈일 것일까. 그녀는 밀러가 초대한 저녁 식사에 아들과 함께 참석하고 결국 아들 앞에서 그와 사랑을 나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본 16살 조는 혼란스럽다. △본노△원망△질투가 섞인 조는 엄마에게 “밀러를 진심으로 사랑해요?”란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엄마는 답이 없다. 결국 가족에 대한 환멸로 가득 찬 조는 떠나려 한다. 그러나 이런 초라한 가족일지라도 조는 버릴 수 없어 떠나지 못한다. 시간이 흘러 제리는 돌아왔지만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고 결국 그들은 완전히 갈라섰다. 평화롭던 한 가정은 너무나 쉽고 허무하게 부서졌다.

콘크리트 속에 자라나는 작은 식물들은 큰 건물을 부술 수 있다. 사소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견고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견고하다고 생각할수록 망심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우리의 △가정△인간관계△직장△학업이 평화롭고 만족스럽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들에 취약한지 생각해야 한다. 늘 공포에 떨며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늘 안정된 것들의 취약성을 인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쌓은 견고함을 지킬 수 있다.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1091호 학보를 읽고

보다 울창한 내일을 소망하며

날이 따뜻해지고 푸르른 5월이다. 외대학보 1091호에선 △LD(Language&Diplomacy)·LT(Language&Trade)학부 특전 폐지△학생회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존재했던 문제△학생포기제 등을 다뤄 우리학교가 보다 울창해질 수 있도록 도왔다.

3면에선 우리학교 LD·LT학부 특전 폐지 문제와 무전공 입학 제도를 다뤘다. LD·LT학부는 과거 △국제학사 우선 선발△대학원 진학△이중 전공 우선 선발△전용 면학실△해외 교환 가산점 부여 등의 특전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번 해 학교 측으로부터 대학원 진학 관련 특전을 제외한 나머지 특전들이 폐지됨을 전달받았다. 이마저도 학생회 차원에서 먼저 인지한 후 학교 측에 문의해 받은 답이다. 학사제도 정비와 그에 따른 다양한 변화는 시대가 흘러가며 동원돼야 할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대상이 학생인 만큼 학교와 학생이 긴밀하게 소통해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

5면에선 학생회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존재했던 문제를 다뤘다. 해당 기사에선 제40대 사범대학 학생회장 재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를 비롯해 여러 단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짚었다. 제40대 사범대학 재선거관리위원장 당시 예비 후보자는 정식 입후보를 위한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범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재하고 관리해야 하는 후보자 추천 서식을 예비 후보자 측에서 직접 제작 및 배포했으며 일부 학우의 후보자 추천 의사를 삭제함

손지성 (사회·미디어 22)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으로써 의도적으로 입후보 조건을 충족하지 않도록 했다. 후자의 경우 선관위와 예비 후보자의 협의에 따른 결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이번 해 진행된 서울캠퍼스 △단과대학△학과△학부 재선거 과정에서 밝혀진 선거 관련 문제는 총 9개였다. △선관위△유권자△후보자 모두 선거의 무게를 인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해 보다 성숙한 학생 자치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

12면에선 흔히 ‘학점지우개’로 불리는 학점포기제를 다뤘다. 학점포기제는 학생들에게 이미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점으로 인정되진 않으나 성적표와 평점 평균에 반영되는 F학점과는 달리 성적표에서 수강 이력을 삭제해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수강신청자유도 확대△평점 평균 관리 측면에서 용이△현존 학사 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점 평균이 모두 높아지는 학점 인플레이션(inflation) 야기 및 대학 평가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명확한 우려 지점이 있지만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 만큼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길 소망한다.

꾸준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심층적인 보도를 해내는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학교가 더 울창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

1091호 학보를 읽고

자신의 목소리를 위하여

5월의 끝에서 성큼 다가온 여름을 마주하고 있다. 여름의 시작은 곧 한 학기의 끝을 의미한다. 여러 변화를 맞이한 2024년의 우리학교에 대해 외대학보 1091호에선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퍼) 제45대 총학생회(이하 총학)△지속되는 선거 문제와 학내 민주주의△청년 저소득층을 다뤘다.

4면에선 제45대 글캠퍼 총학 ‘너울’의 공약과 정견토론회 질의응답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지난 글캠퍼 학생사회는 총학이 아닌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됐기에 학내 사안에 대한 공유와 학우들의 의견 반영에 미흡함이 존재했다. 4월이란 다소 늦은 시기에 진행된 선거임에도 지난해 총학생회 부채를 겪은 학우들은 큰 관심을 보였고 이는 49.03%라는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 정견토론회에서 언급한 △도서관 리모델링 사안△송도캠퍼스△총장 투표에 관한 학생 투표를 개선△학점포기제에 대해 학생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고 학생 사회의 선순환을 도모할 소망한다.

5면에선 사범대와 ELT(English Linguistics & Language Technology)학과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교내 선거 문제를 짚었다. △사범대 선거의 추천인 수를 하위로 보고한 사례△총학 지지자의 중선관위 비방 유인물 배포 사례△ELT 학과 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절차 기간 미준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외대학보에서 언급한 무지로 인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

김솔리 (국제지역·러시아 22)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위)가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인지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와 선관위 모두 선거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교내 선거는 학우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자리가 만큼 학우들의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7면에선 우리나라 청년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를 다뤘다. 외대학보에선 늘어난 청년들의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증가를 언급하며 이에 비해 정책이 청년의 취업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던 점을 지적했다. 정책 수립 이전에 청년 빈곤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빈곤은 한 사람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청년 저소득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

중점적으로 바라본 기사가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대학생은 아직은 어린 20대지만 성인이기에 더이상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주지 않는다. 모두가 자신의 행동과 위치에 책임감을 느끼고 임하며 자신의 권리에 목소리 내는 성숙한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이외에도 외대학보 1091호는 △배달 업체의 경쟁 심화△학점포기제△LD(Language&Diplomacy)·LT(Language&Trade)학과의 특전 폐지를 다뤘다. 늘 먼저 사회를 바라보고 학우들의 관심이 지나간 자리 또한 비추는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응원과 감사를 표한다.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빴던 중간고사 기간 이후 내 학보 생활도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마 다음 빈의자를 쓸 때엔 마지막 마감을 마치고 마음이 싱숭생숭 할 것 같다. 하나 둘 변화가 찾아오는 학보를 바라보며 이번 1092호에선 외대학보 기자들이 어떤 기사들을 썼는지 하나씩 읽어봤다.

먼저 4면에선 우리학교 축제 기획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다뤘다.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축제인만큼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도 모두 소중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현실적인 의결구조의 문제로 인해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없어 총학생회와 기타 학내 기관들의 협의로 진행되기에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연예인 섭외나 축제 안내 등에 있어서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학생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고 결정된 사안들을 꼼꼼히 전달해주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

7면에선 인문학 침체의 위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학교의 특성상 다른 학교보다는 인문학을 연구하는 수업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문학 전공생 수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인문학의 침체는 곧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번 1092호 기사에서는 인문학 침체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이 대체될 수 없는 학문인가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음으로서 학생들에게 인문학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

8면에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인 사태에 대해 다뤘다. 라인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회사들이 서로 지분을 정확히 반씩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의 의견이 대립한다면 한 쪽의 입장만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대학보는 이번 라인사태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루며 조속히 위 사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네이버 측의 실수가 있었지만 두 번 다시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구축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12면에선 최정규 변호사(이하 최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를 꿈꾸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공익변호사로서의 활동과 꿈을 향해 노력하길 바란다는 따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로스쿨을 준비하며 범조계로 나아갈 학생들에게 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번 1092호를 준비하며 편집장으로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이제 곧 외대학보를 졸업한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남은 마감들이 더욱 소중해졌다. 해이하지 않도록 항상 처음 수습기자를 지원했을 당시의 마음가짐으로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다짐 뿐이다. 초심으로 돌아가기. 2023년 겨울방학때 설레는 마음으로 학보를 시작했을 때처럼 2년이 지나 다시 돌아온 여름에 학보를 잘 보내줄 수 있길 희망한다.

임채린 편집장 06chaelin@hufs.ac.kr



“괜찮을까요?”, “어쩌면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전하면서 과학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대다. 그런데 여기 ‘로봇’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한 뮤지컬(musical)이 있다. 2016년 12월 대학로 대명문화공장에서 처음 공연을 올린 ‘어쩌면 해피엔딩’이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인간들을 위한 반려 로봇들의 이야기다. 가사도우미로 로봇이 흔하게 쓰이는 시대 속 더 이상 쓸모를 다 한 로봇은 어디로 가게 될까? 주인공 ‘올리버(Oliver)’는 자신의 주인 로봇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 소소한 하루를 보내며 살아간다. 이때 옆집에 사는 ‘클레어(Claire)’가 충전기가 고장나서 도와달라고 올리버를 찾아온다. 두 사람은 처음엔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기도 하고 종종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점점 서로에게 빠져든다. 로봇도 인간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작품들이 다루고 있다. 로봇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감정’에 두고 서술하는 작품들이 많은데 어쩌면 해피엔딩은 이런 로봇들도 얼마든지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리버는 자신의 전 주인인 ‘제임스(James)’를 찾으려 클레어와 함께 제주도로 향한다. 제임스의 집에 도착한 뒤 올리버는 제임스는 이미 죽었으며 제임스의 가족들은 신형 로봇을 들인지 오래라며 올리버를 비웃는다. 클레어는 제임스가 너를 버린거라며 화를 내지만 올리버는 제임스는 자신의 친구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사람은 다투게 됐고 올리버와 클레어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제임스가 진짜 올리버를 버린 것인지는 작품 내에 끝까지 나오지 않는다. 올리버의 말처럼 제임스는 올리버의 친구였을 수도 있고 클레어의 말처럼 쓸모 없어진 로봇을 버린 것일 수도 있다. 클레어는 상심한 올리버를 위로해주며 대신 제주도의 아름다운 반딧불이를 보여 준다. 두 사람은 반딧불이 아래에서 올리버와 클레어는 서로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진심으로 행복해한다. 자신도 인간들처럼 사랑이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에 신기해하는 한편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상대방에게 점점 더 빠져든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클레어의 부품에 이상이 생겨 완전히 고장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무리 로봇이라 한들 두 사람에게도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끝까지 클레어를 놓지 않으려는 올리버와 올리버가 자신 때문에 슬퍼하길 바라는 클레어는 다시 한 번 갈등하게 된다. 결국 올리버와 클레어는 서로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기로 했고 올리버와 클레어의 관계는 정리된다. 물론 두 사람이 진짜로 기억을 지운 것인지는 열린 결말로 남겨졌다. 극의 마지막에 클레어가 다시 한 번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올리버의 집을 찾아오며 끝난다.

로봇이 인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어쩌면 해피엔딩에서는 그렇다고 답한다. 감정을 느끼는 로봇들의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 뮤지컬을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해외에도 진출하고 여러 시상식에서 수상할 만큼 높은 작품성을 보여주고 있다. 작은 대학로 소극장을 항상 가득 채우는 어쩌면 해피엔딩이 다음 달 18일에 다시 한 번 돌아온다고 한다. 시간이 된다면 두 로봇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이 뮤지컬의 마지막에 클레어와 올리버는 각각 이렇게 말한다. “괜찮을까요?”, “어쩌면요”.

·임채린 편집장 06chaelin@hufs.ac.kr

부엉이 메신저

외대학보 파이팅!

-익명의 구독자-

사계절 내내 요즘같았으면 좋겠어요! 한강 피크닉 가자~

-이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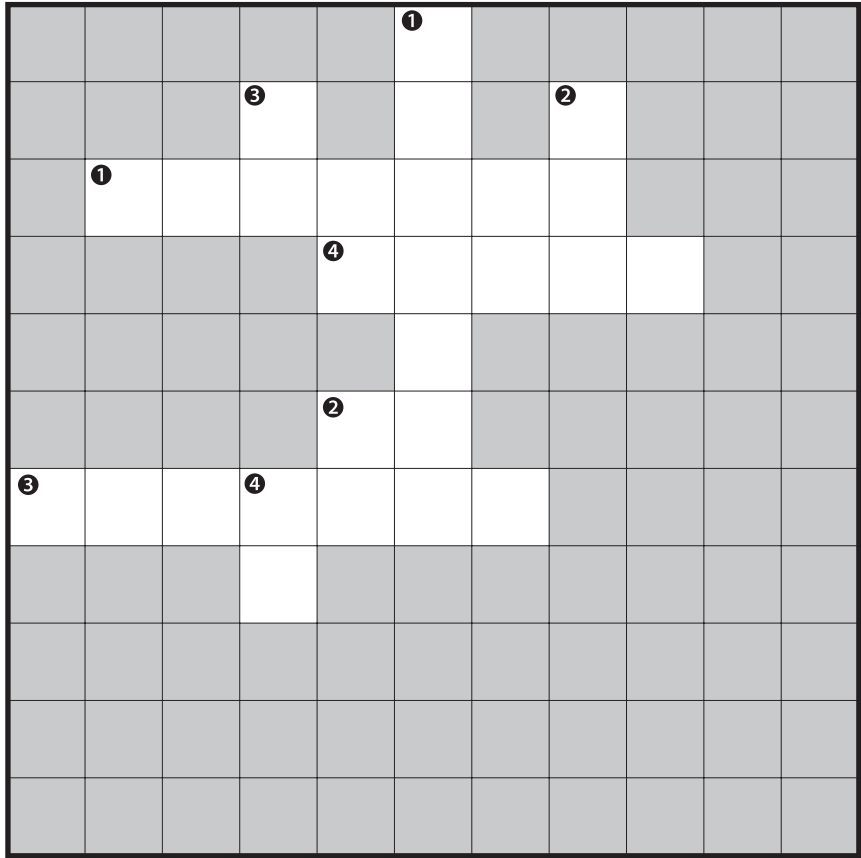
천원의 아침밥 덕분에 매일 아침이 너무 든든합니다. 감사해요.

-익명-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전화는 제발 나가서 받으라고!!

-익명-

십자말풀이



가로

- 1. 우리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은 1996년 급속도로 활발해진 국제교류와 세계화 기류 속 ○○○○○○ 인력양성을 위해 설립돼 국제협력 실무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왔다. (1면 참조)
- 2. 세부 프로그램 기획은 주로 ○○에 의해 이뤄진다. (4면 참조)
- 3. 따라서 형 ○○○○○○이 적용되지 않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9면 참조)
- 4. 대학 강의는 '저작권법 제4조'에서의 어문저작물로 규정돼 있어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다. (3면 참조)

세로

- 1. 하태훈 고려대학교 ○○○○○○ 교수에 따르면 “녹음된 자신의 말이 나중에 재생되어 자신에게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겁이 났다” 며 “말의 자유를 잃은 재학원강사처럼 한 시간 내내 강의 내용만 전달하는게 일상이 됐다” 고 밝혔다. (3면 참조)
- 2. 다만 라인사태는 단순히 네이버라는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일본에서 어떤 입지를 가질지를 다투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8면 참조)
- 3. 청년채움공제 ○○(5면 참조)
- 4. 특히 출연 연예인 사전공개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오해의 ○○가 없도록 직접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단서의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4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6chaelin@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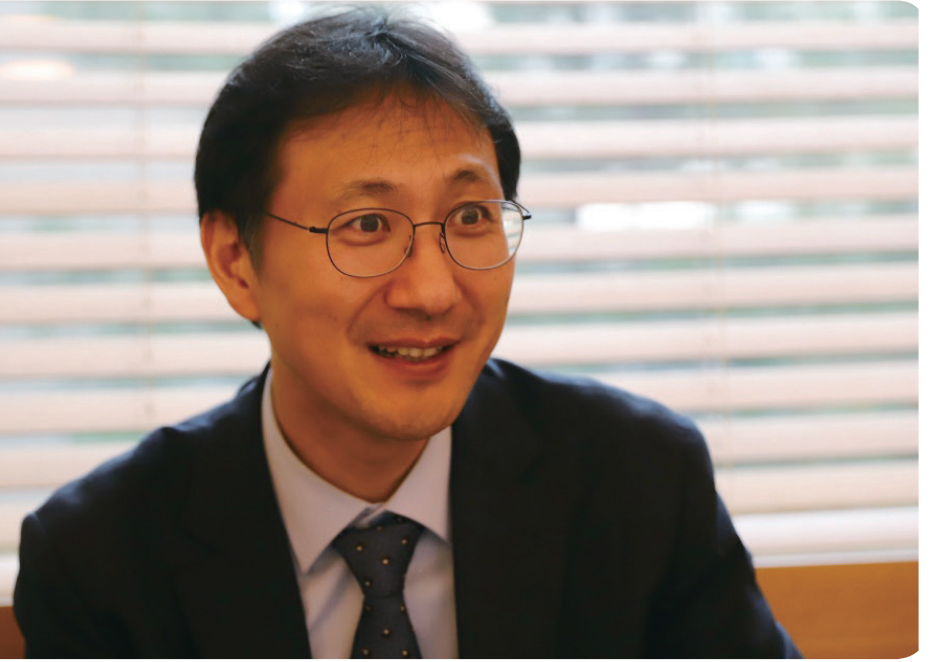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임채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어둠 속 고립된 이들을 비추는 구원의 손길

최정규 변호사를 만나다

최정규(법 95) 변호사(이하 최 변호사)는 지난 2000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현재 법무법인 원곡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고 김홍영 검사 사건 및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익 소송을 담당했다. 그는 현재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지소장으로 활동하며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최 변호사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제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는 우리 학교 법학과였습니다”란 답변을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성적에 맞춰 지원했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대학입시라는 주어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고등학교 시절은 너무 싫었지만 대학 생활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진행됐던 법학 전공수업도 정말 흥미로워 공부의 재미를 발견했고 이는 사법시험에 도전해야겠다는 용기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공부만 한 건 아니고 공법학회와 수화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Q3. 변호사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무엇인가요?

공익 제보를 했음에도 오히려 피의자로 몰려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외국인에게 욕받으려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의 문제를 세상에 알렸는데 오히려 그 수사관의 정보를 알렸다는 이유로 제가 피의자가 된거죠. 대한민국 사회협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여러 시민단체도 저를 위한 구원 활동에 나서서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피의자가 됐던 경험이 의뢰인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4. 공익 소송 사건을 담당하기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익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활동을 해왔기에 이러한 활동 중 이주민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배상소송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업 후에도 공익소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5. 공익 소송 사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았던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담당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중에선 가족과의 연고조차 없는 20명

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법률 지원을 요청해와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됐어요. 해당 사건을 수임한 당시엔 개업하고 얼마 안 됐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큰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들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마음에 시작했던 일들이기에 이렇게까지 오래 주목받는 사건이 될 줄 몰랐습니다.

Q5-1. 함께 주목받았던 ‘고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부의 체계를 당시와 비교해 보면 해당 사건의 담당 유족 대리 변호사이자 ‘얼굴 없는 검사들’의 저자인 최 변호사님의 시각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 식구 감싸기란 문화는 검찰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검찰조직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홍영 검사의 가해자가 부장검사라고 해서 그를 처벌하지 않는 검찰이 다른 조직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을까?란 의문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4년 만에 해당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죠. 이를 통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Q6.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지소장과 사랑샘 재단 이사로 활동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계십니다.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법시험 2차를 마치고 발표를 기다리며 학교로 돌아와 남은 1학기를 다닐 때 수화동아리 ‘손소리샘’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제 전공과목이 ‘법학’에서 ‘수화’로 바뀐 것처럼 일주일 내내 동아리 활동에 매달렸죠. 이때의 경험을 그 이후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Q7.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대부분의 법과 판례가 사회적 약자가 아닌 기득권

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죠. 그렇기에 공론화 방법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공유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직접 글을 써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시사인 ‘세상에 이런 법이’ 연재△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SBS ‘인잇’ 연재가 다 그런 맥락입니다.

Q7-1. 장애인에 관한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이로 인한 어려움들도 궁금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률이 시행된 지 16년이나 지났기에 그 차별이 조금은 사라져야 함에도 아직 여전하다는 사실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할 때 만나는 △검찰청△경찰청△국가기관△노동청△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Q8. 일반 사건과 구분되는 공익 사건의 특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실 공익 사건의 정의가 따로 있지 않아요. 나름대로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당사자 구제에 집중하는 일반 사건과 달리 사건의 과정과 결과가 단순 구제를 넘어 사회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익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당사자 한 사람이 아닌 유사한 처지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점에서 일반 사건과 구별됩니다.’

Q8-1. 변호사님께서 주요 공익 사건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이유로 변호사님은 공익변호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공익 전문 변호사는 아닙니다. 개업변호사로 활동하며 일반 사건도 진행하고 공익 사건도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현재 진행하는 사건 중 공익 사건의 비율이 70%를 넘으니 공익 반입 변호사라고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Q8-2. 공익변호사 중 프로보노(pro

bono)* 성격으로 봉사하는 변호사와 차이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요즘 대형 로펌들이 프로보노 활동을 위해 별도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서 공익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원곡’은 프로보노 활동을 ‘봉사’로 하지 않고 ‘업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법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2명이 변호사로 시작해서 12년이 지난 현재 총 구성원 11명의 규모로 성장한 것처럼 앞으로도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Q9.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는 ‘고용’과 ‘도급’이 아니라 ‘위임’입니다.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의뢰인이 나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것이니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맡겨진 사건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Q10. 변호사를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걸어가는 길이 처음부터 선명하고 명확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희미하고 불명확하더라도 열심히 걷다 보면 조금씩 길이 보일 겁니다. 지금은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길을 성실히 잘 걸으신다면 꼭 좋은 길에 다다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꿈꾸는 바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프로보노: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 보통 변호사의 공익 활동을 지칭한다.

이병찬 기자 08byeongchan@hufs.ac.kr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그들과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거목과 같은 사회공헌기업(CSR)을 지향합니다



Forbes Asia's 200 Best Under A Billion
10th Sep. 2009/ 1st Sep. 2010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2년 연속 포브스가 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00대 유망 기업 (Asia's 200 Best Under A Billion)에 선정 되었습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40여개 국에 수출하는 한국인이 주인이 다국적 제약기업입니다. 예술문화사업,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여러나라에서 펼치는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세계 도처에서 한국의 열과 문화를 수출하는 글로벌 사회공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다국적 제약기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www.kup.co.kr